■IAEA 방북 성과와 향후 북핵 일정·전망

"영변 핵 폐쇄 시점 6자회담서 결정"

10일 이후 6자회담…2·13 합의 이행 본격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지난달 30일 5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면서 북핵 2·13 합의는 본격 이행 국면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앞으로는 약속한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북측이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지, 그에 따라 6자회담이 관련국들의 목표시점인 7월 중순께 열림으로써 한참 지연된 북핵 일정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올라설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북 성과=올리 하이노넨 사무 부총장이 이끄는 IAEA실무 대표단의 방북 협의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이노넨 부총장이 지난달 30일 "1주일내"에 방북 결과를 IAEA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다음주 중에는 자세한 내용이 6자회담 당국자들에도 전해질 전망이다.

다만 방북 기간에 IAEA 대표단과 북 측간 마찰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만족스런 면담을 했다'는 IAEA 방북인사의 언급 등으로 미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방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북단과 북측은 5MW원자로와 건설 중단된 50MW 및 200MW원자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시설이 빠지지 않고 포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때 동결대상이었던 이들 시설이 2·13 합의에 따라 폐쇄·봉인될 경우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은 차단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폐쇄 시점·차기 6자회담 시기 '관심'=핵시설 폐쇄·봉인 절차를 둘러싼 북한과 IAEA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13 합의 일정도 이번 주부터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6자회담 참가국들은 사전 협의에서 7월 초까지 핵시설 폐쇄조치를 상당부분 진행시킨 뒤 7월10일 전후로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7월말 또는 8월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표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우선 IAEA는 7월9일께 특별이사회를 갖고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시설 감시·검증단 파견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감시단이 이르면 7월10~12일께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것은 북한이 언제 핵시설 폐쇄·봉인에 착수할지 여부다. 7월10일 전후로 6자 트랙이 재가동되려면 이르면 7월10~12일께로 예상되는 IAEA 감시·검증단의 입북 전에 폐쇄조치가 상당부분 진행되어야 한다.

◇대북 중유 지원 문제도 변수=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5만t에 대한 북측의 태도도 핵시설 폐쇄 시기를 결정하는 데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하이노넨 사무부총장도 30일 "핵시설 폐쇄시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자발적으로 폐쇄 일정을 잡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IAEA가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를 놓고 6자 회담 참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南北 "대북 중유 5만t 2주내 수송" 합의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가 정한 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제공할 중유 5만t의 수송이 2주일 내에 시작된다.

남북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간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대북 중유 5만t 제공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남북은 이번 접촉을 통해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은 유황성분 2.5%의 중유 5만t을 해로로 북측에 제공키로 하고 첫 배 출항은 인도·인수절차를 합의한 이날 이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첫 배가 출발한 뒤 20일 이내에 중유 5만t에 대한 출항을 모두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배 출항이 2주 후인 7월14일에 이뤄지고 그로부터 20일 내에 수송작업을 완료될 경우 중유 수송에 34일이 걸리면서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8월 초에는 수송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생·보통선거 보장하라" 홍콩의 민주화 세력들이 홍콩의 중국 반환 10주년을 맞은 1일 민생과 보통선거 보장을 요구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일국양제 계속 유지하겠다"

후진타오 주권반환 기념식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일 홍콩 주권반환 10주년 기념식에서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기본 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이날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 회귀 10주년 기념식 및 제3기 홍콩정부 취임식'에 참석, "일국양제는 중화민족의 인류 정치문명에 대한 독특한 공헌"이라며 "중국과 홍콩은 일국양제를 통해 값진 경험을 얻었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오늘날 홍콩의 발전은 일국양제 방침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홍콩 기본법(헌법)에 따라 홍콩 정부에 위임한 '고도 자치권'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그러나 일국양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일국'은 '양제'의 전제조건으로 직선제 도입 등 민주화 요구는 중국이 홍콩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홍콩=연합뉴스

美 비자 이르면 내년초 면제

부시, 한국 비자면제 추진 성명 발표

90일 단기 체류 가능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한국의 비자면제 가입이 내년 초반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중·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상기하고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성명 발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식 서명을 적극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미 행정부가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관광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의 정책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영국 글래스고의 공항에서 4륜 구동 지프차 한 대가 공항 터미널로 돌진, 충돌 후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英, 차량 폭탄 이어 불타는 지프 공항 돌진

테러 공포 확산…美 공항들도 비상

영국 런던 시내에서 차량 폭탄 2개가 발견된 지 하루 만에 불 타는 지프 차 한 대가 지난달 30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공항 청사로 돌진해 충돌한 사건이 발생해 영국에 '테러' 비상이 걸렸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글래스고에서 이틀 연속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일어남에 따라 국가 보안경보 등급을 테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최고 수준인 '긴급 상황(critical)'으로 상향 조정했다.

브라운 총리는 총리실로부터 TV로 중계된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사건을 "(테러) 공격"이라고 분명히 규정짓고 영국인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공항과 붐비는 장소에서 보안 경보를 최고 위협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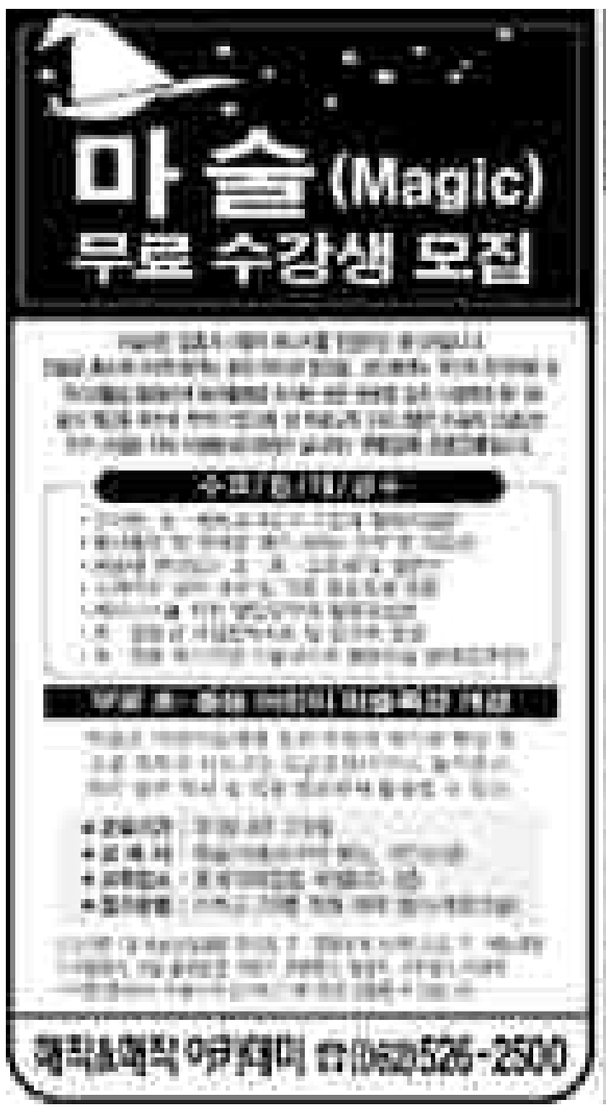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공항에서는 체로키 지프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5분께 화염을 내뿜으며 전속력으로 공항 주 터미널 정면 유리문을 향해 돌진해 충돌했다.

이에 따라 지구촌이 다시 테러공포에 휩싸였다. 미국은 글래스고 공항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해 경계의 수위를 높였다. 스페인도 지난달 30일 바스크 지역신문의 폭탄테러 경고 후 발레아릭 군도에 있는 이비자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등 공항을 잠정 폐쇄했었다. /런던=연합뉴스

"'5월 광주' 영화 개봉 앞두고 반미감정 재발 우려"

워싱턴타임스 보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국인들은 이 영화가 반미감정을 다시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지난달 2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타임스는 지난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9년후 있었던 중국 천안문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동의했거나 진압군의 광주이동을 묵인했다는 믿음이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 한국에서 강한 반미감정을 유발시키고 한미관계를 계속 악화시켰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지훈 감독은 지난달 28일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시사회에서 "가능한 한 사실에 입각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순전히 사실에 기초했다"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